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14. 새 언약의 일꾼

2018. 10.19. 이현래 목사

로마서에서 연합에 대해 말씀을 하다가 히브리서로 건너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할 일이 다 끝날 것 같다. 지금 꼭 우리가 필요한 때이고, 이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일은 지금 2천년대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옛 언약 안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옛 언약이라는 말은 법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모양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실체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삭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들의 모양이고 형상인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림자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모양과 그림자이기는 해도 아직은 덜 왔다는 말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길을 걸어서 새 언약까지 온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을 봐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데 차츰 차츰 발전을 해서 완전한 것이 된다.

자동차 발전사를 미국 박물관에서 보니 처음에는 내연기관(엔진)이 쓰레기통만한 것에서 시작했다. 달구지에 달아서 그렇게 시작한다. 경운기만 하더라도 완전한 기계인데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데서 출발해서 지금 자동차까지 왔다. 자동차는 지금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게 정밀하고 온전한 기계가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것은 다 구비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면 그것이 있고,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면 저것이 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완비한 것이 자동차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공업화된 나라라고 한다. 거기서 비행기도 생산하고 모든 것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이렇게 인류사회에서 이루어졌지 하루아침에 다 된 것이 아니다. 어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계시가 더 발전하고 개방되어야 되는데 교리화나 제도화를 통해서 가로막아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된 것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더 이상 무엇을 보태지 말라고 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예수님이 오신지가 벌써 2천년전이다. 그런데 2천년동안 무엇이 더 개발되고 발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퇴보한 셈이다. 우리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한다. 나도 죽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만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많이 보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으시려면 좀 살려 놓으실 것이라는 배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먼저 간 곳은 먼저 쇠퇴하고 있고, 늦게 간 곳은 늦게 쇠퇴하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류에게 해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K-pop을 보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미친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도 K-pop 아이돌이 오는 것을 보려고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서 자기 앞에 한번 지나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한다.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서 저런 일이 생기면 세상이 바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렸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유럽은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엄청 줄고 있다고 한다. 그런 형편이니깐 여기서 세상 방법을 더 도입해서 세상을 앞질러 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왜냐하면 서구문명을 타고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거의 이상시 하다시피 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일본의 유명한 성서학자 우찌무라 간조도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천사처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1800년 대인가에 미국을 건너갔다. 배로 가니까 40일이 걸려서 미국을 갔다. 미국에 갔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인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또 이단이니 삼

단이니 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완전히 실망을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고 하고 소위 무교회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사람들 속에는 무교회주의 신앙이 아주 깊이 박혀 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모이지 않고 2~30명이 모이면 큰 교회이고, 성서연구만 하는 것 같다.

흘러가는 물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고 있는데, 계시가 따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포착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고 막혀버리니까 2천년전에서 멈춰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만 무엇이 못한가? 그때보다 형식이 못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 자신에 대한 앎이 그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된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예고되었던 말씀이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

이것은 옛 언약의 끝에서 정점에서 나온 말이니까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법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해서 백성을 인도해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다. 그 안에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은 믿음에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미달된 사람들이 되었다.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청년이 결혼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왔다. 그 단체에서는 같은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상당히 열외가 되는 모양이다.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왔다. 자기는 좋은데 그 사람과 결혼하려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결혼이나 해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좋으면 결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을 두 사람 보았다. 또 C.C.C에 있을 때 어떤 처녀가 와서 고민을 한다. 자기 평생소원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성

가대원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주일날이면 찬양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어찌면 좋으냐고 물어봤다. 나는 속으로 이것이나 그것이나 매 한가지이니까 좋으면 결혼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건너간 후에 편지가 한 번 왔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둘이 결혼해서 미국까지 왔고 감사하다고 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들어보니 이것이나 그것이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대구에 처음 왔을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것만 차이가 있지 사람이 달라졌는가?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달라졌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딘다. 그런데 자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좋다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서로 다르면 정말 답답하다.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나와 있을 사람이 다르면 답답해서 말이 안 된다.

성육신의 복음이 형식적으로 전해졌어도 예수님만 성육신이다. 다른 사람은 성육신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막아놓았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큰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의 신념이 성화, 수양, 헌신, 기도를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겼다. 루터가 그 출신이다.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행위로는 안 된다, 수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살던 사람이 나와서 결혼도 했다.

수도사일 때는 성화가 될 줄 알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때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반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끝을 맺어버렸으니까 다음에 칼빈이 들어와서 더 강화시켰다.

누가 인터넷에 올렸던데 서방교회는 성화를 주장하고, 동방교회는 신화를 주장하고, 기독교는 의인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동방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신화한다는 사상이 똑같은데 없지만 성육신과 비슷한데 우리와는 먼 것이 되었다. 우리는 서방교회 출신들이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프로테스탄트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면 예수님만 성육신되는 것이지 그 다음 성육신의 보편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 성육신하고, 나머지 인간은 성육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갈 길은 어디인가? 죽어보자.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된다.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하고 끝나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연합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로마서를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연합이 주제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다 되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 없이도 될 수 있다.

로마서를 맨 먼저 개발한 사람이 루터니까 또 다음에 칼빈이다. 개혁가들마다 로마서를 강해했다.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유명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연합에 대한 것은 없는가? 연합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만약 연합이 안 된다면 모든 것은 약속으로 끝난다. 모든 것은 약속이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모든 약속은 보증인이 없으니까 아직 다 수표에 불과하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보증이시다. 그리고 중보자시다. 이 부분이 가려져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뭔가를 기다려야 한다. 천당에 가든지 말세가 오든지 이런 것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천당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면 갈수록 천당 믿을 사람은 적어진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천당이 없다는 소리를 못한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알면서도 못한다.

그런데 신부들은 당당하게 말한다. 꽃동네 신부님이 이야기한다. ‘여러분 천당에 가고 싶지요?’라고 하니 다들 ‘예.’하고 대답한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천당은 공간이 없습니다. 천당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그 말을 못한다. 그 말을 했다가는 반쯤은 갈라져 나간다. 왜냐하면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면 천당 가려고 믿는다고 하는데 천당이 없다고 하면 누가 가겠는가?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걸려서 나간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모든 것이 약속어음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세론이 나오게 된다. 언젠가 한번 외장창 해서 끝장이 나와 되기 때문에 말세론에 늘 속았으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수표만 계속 남발할 것인가? 답을 주어야 한다. 이 답이 예수와 우리와의 연합에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17:3).” 영생이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우리는 새 언약의 증인들로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이다. 수표시대가 지나가고 현금이 왔다. 현금이 온 것이 벌써 2천년이 되었는데 현금 유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것은 우리가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적인 것이다.

내가 처음에 성육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찍혔다. 성육신을 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성육신 아니면 뭐가 되겠는가? 연합이 되지 않고는 성육신이 될 수 없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는 성육신이 될 수 없다.

율법에도 벌써 이것을 예시해놓았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이런 것이 다 무엇인가? 제단에서 죽은 그 피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결국 십자가이다. 누구나 그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에 힘입어 들어갔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고 했는데, 그 힘입는다는 말이 법률적인 말이 되어 버리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율법적인 말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법적으로 무엇을 용서받는다는 것과 똑같다.

나는 도둑질할 사람으로 그냥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3개월을 살고 나오면 된다는 말과 똑같다. 그러면 다시 도둑질한다. 왜? 나는 도둑질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도 너무너무 좋다. 나도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니까 숨통이 터졌다. 정말 너무 좋았다.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과 한 시간 내내 강의실에서 싸웠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

질 수가 있는가? 나는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결해진다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길래 나는 반박을 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 질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는 은혜이다. 숨통이 터진 것이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숨통이 터진 것이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는 것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다시 또 나타난다고 했다.

결코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으로 놔두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겠는가? 언제 떨어지겠는가? 죽은 후에 떨어진다는 말인데 죽은 후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딱지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서 모두 막혀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될 수 없다는 여기에 막혀 있다.

하나님의 비상 대책이라는 것이 그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려고 비상 대책을 쓴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는가? 그런데 죽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죽는가? 그런데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왜 저 약속은 안 지키는가? 이렇게 되게 됐다.

이러면 현대인들은 끝없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유태인이 600만이 학살될 때 여호와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묻는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것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보복이고 재앙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겠는가?

모든 것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성육신 안에서 밖에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20).”는 말씀이 있다.

배경은 물론 다른 말이다. 바울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못가겠다고 취소를 하게 되었다. 약속을 해놓고 못가겠다고 하게 되었으니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왔던가보다. 바울이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한 말이다.

바울의 사정은 무엇인가? 처음에 가고자 할 때는 내가 가면 저것이 해결이 되겠구나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 속에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가게 되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가겠다는 것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었다. 아니라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다. 배경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바울은 똑 같은 사람이다. '예' 할 때나 아니라고 할 때나, 간다고 할 때나 안 간다고 할 때나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간다고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안 간다고도 했다. 두 가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말은 두 가지 말 같지만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것이다.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안 지킬 때도 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된다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안해야 된다. 그러나 유익이 된다면 약속을 안했을지라도 가야된다. 이것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놀라운 비약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 지금 자기 안에서 아무 모순이 없다. 간다고 했을 때나 안 간다고 했을 때나 자기 안에 모순이 없다. 왜?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니까 가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안 간다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안 간 것이니까 자기 안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 자기 안에는 늘 '예'만 있었지 아니라함이 없다는 것이다.

사역자들도 이런 문제를 당하기 쉽다. 왜 그때는 이래놓고 지금은 이러느냐고 할 때가 있다. 나를 오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다. 내가 약속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쓸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의롭다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어코 약속을 지켜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

다. 나는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이다. 아무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맹세를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

내 의로움, 자기 의로움을 위할 것이면 맹세해도 되지만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에도 맹세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맹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쓰시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리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들이 모두 어떤 사람 안에서는 ‘예’가 된다. 또 어떤 사람 안에서는 다 ‘예’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다 아멘이 되기 때문이다.

아담이 만일 흠으로 지어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멘이 되었더라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다. 아멘이 안 되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담 안에서는 무엇이랴도 오면 다 자기를 걸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된다. 그것이 저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멘하면 복이 되고, 아멘 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데 내가 아멘이 안 되니 저주가 되는 것이니 어찌겠는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멘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지 옛 언약 안에서는 ‘예’가 될 수 없다. 어떤 때는 ‘예’가 되다가 어떤 때는 ‘예’가 안 된다. 광야에서 그렇다. 어떤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한다. 40년 동안 계속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를 한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는 간판을 광야교회라고 붙여 놓았다. 고생한다는 뜻으로 했겠지만 광야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런 교회이다.

우리가 성육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연합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될 수가 없다. '예'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우리 안에서 '예'가 안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무슨 행사를 해서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면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다는 말을 해야 되는가, 온다는 말을 해야 되는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형제들을 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간다는 말을 할 때는 좋고, 안 간다는 말을 할 때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을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요일 2:27).”라고 했다. 하나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하나되는 자리가 십자가이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십자가 없이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다. 그 토양에서 나온 그 종교이다.

이 비밀이 감추어진 이상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 죽으신 것이 헛되고 만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죽으신 것이 다 헛되고 만다.

새 생명은 둘이 연합한 생명이다. 새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된 생명이 새 생명이다. 유정란, 수정된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 수정되지 않은 계란은 아무리 크게 낳아 놓아도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 수정된 것만 병아리가 될 수 있다.

수정되었다는 말이 연합되었다는 말이다. 난자와 정자가 연합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둘이 합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했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수정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무슨 수로도 불가능하다. 거기서 방법을 쓰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방법을 쓰면 다 위선이다.

수정되고 낳은 것만 진짜 아들이지 수정이 안 된 것은 종이로 만든 계란이다. 중국에서는 계란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앞으로 생명을 빙자해서 만든 것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우*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씨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가? 목말라서 수박을 먹는데 수박씨가 걸리는데 씨가 없으니까 먹기 좋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씨를 만들어야 하니까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서 없어지고 말았다. 씨 없는 수박은 학계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 인간이 먹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말았다.

연합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이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계란을 보면 구별이 없다. 수정된 계란이나 수정되지 않은 계란이나 구별이 없다. 그런데 수정되지 않은 계란은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

소 키우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송아지를 낳아서 모유를 먹이지 않고 인공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출산기가 돌아오면 생산을 못한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이다. 모유를 먹지 않으며 그렇다.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모유는 가치가 없다. 처음 나온 것만 먹지 조금 지나고 나온 것은 맹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여 일부러 젖을 끊고 분유를 먹였다. 요즘 아이들이 불임이 많은데 원인이 그것이 아닌가 싶다. 소 키우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클 때는 모르는데 생산을 할 때는 안 된다고 한다. 생명이란 이렇게 예민하다. 모유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도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반드시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이 있었다. 먹여야 한다는 쪽에는 메이저들이 없고,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는 우유 메이저들이 대량의 돈을 써서 연구를 시켜서 단순 비교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영양가를 비교하면 분유가 훨씬 높다. 그런데 분유는 흡수율이 완전히 떨어지고 모유는 영양가가 적은 것 같지만 거의 100%로 흡수가 다 된다. 그리고 모유에는 면역체가 들어 있다.

자연을 어기고 되는 것이 없다. 생명을 어기고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전달될 수가 없

는 것이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지식으로 정리하고 지식으로 정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되는데 연합이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이 묻혀 있는 상태이다.

나는 우리 교역자 모임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참석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까지 다 있다.

그런데 성육신이 안 된다. 성육신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이지 네가 무슨 성육신이냐고 한다. 우리가 성육신이 안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이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씨가 완성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씨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면 그 씨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는 만드는 세계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이다.

사람을 만드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왜 이렇가? 이것은 전부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이다. 같은 생명이 아니면 생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갈비에서 뺏으니까 동반자라고 한다. 동등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해석했다. 갈비뼈를 뺐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생명이라는 말이다. 한 생명이라는 말이다.

많은 생물들을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이름한 바가 이름이 됐더라고 했다. 그런데 배필이 없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이지 동등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들 뜻대로 해석을 한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자부심이 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9:15).”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이 성육신 안에 들었다. 성육신이 없이는 영원함이 없고 다 약속이다. 다음에 보자는 것이다.

우리 말 속담이 재미있다. 내일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한다. 하나님이 내

일보자 내일보자는 말을 얼마나 해왔는가? 그 시간이 얼마인가? 생각해보라. 지금 21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는가? 더 이상 약속어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현금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

K-pop이 인기를 끄는 것을 가만히 보았다. 왜 저것이 저렇게 인기를 끄는가를 보았더니 누구든지 와서 뛰면 된다. 스텝 밟을 필요도 없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면 된다. 형식도 모양도 없고 그냥 뛰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 같다. 한번 와서 실컷 뛰고 가는 것이다.

곡이 다 똑같다. 리듬이 똑같다. 어디 풀 데가 없다. 에너지를 풀 데가 없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거기 나가면 확 풀어지는 것 같다. 단순하니까 그렇게 된다. 복잡한 스텝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오겠는가? 안 온다. 스텝을 배울 필요도 없고 나와서 그냥 같이 뛰면 된다.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현금주의 시대에 와서 또 다시 약속어음을 남발하면 되겠는가? 천당에 가서 보자거나 말세에 보자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여 봐야 되지 내일 될 것이라는 것이 없다.

내가 이번에 죽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루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다. 아무것도 없다.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뭘 보고 왔다는니 하는데, 나는 어찌된 것인지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가서 봤다고 해서 뭐하겠는가? 지금 내가 단 한번이라도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이 낫지 죽은데 가서 보고 왔다고 해서 뭐하겠는가? 그 다음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전혀 본 일이 없다.

옛날에 김*봉씨라는 소설가가 6.25때 자기 제자들에게 붙들려서 타살형을 받았다. 인민재판에서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것으로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가 8일 만에 깨어났다고 한다. 그 사람이 문학가니까 그러기도 하겠는데, 자기는 그 8일 동안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 저 사람은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했는데, 나는 문학한 사람도 아닌데 하루 동안 죽었는데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나는 영성이 부족해인지 영발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그런데 깨어나도 여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세계는 여전히 있다. 더군다나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고 왔으면 안 전해도 된다.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지금 다 안 되도 상관이 없다.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이 또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다음에 더 좋은 세계 가면 되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은 이 삶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여기는 교역자들이 모였으니까 일당백이라고 한 사람이 100명씩만 되어도 얼마인가? 한사람이 1000명씩이면 얼마인가? C.C.C. 계산대로 하면 이것이 순이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이 된다.

내가 처음에 순론을 읽으니까 희망이 생겼다. 금방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엑스플로 74운동도 그것이다. 30만 명의 전도요원을 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30만 명이 10명씩만 전도해도 300백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300백만 명을 다시 한 번 훈련시키면 3천만이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하니 그 말씀에 가슴이 너무 벅차서 C.C.C.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다.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지 다음에 보자는 것은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을 전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히9:26).”** 했다. 옛날 것을 다 끊으려고,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옛날 것을 되풀이 하고 있으면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성육신의 시대이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된 시대이다.

여기는 내가 완전이고 완전이 아니고가 없다. 둘이 연합하는 것이다.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연합하지 완전한 것끼리 연합하겠는가?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필요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필요하고,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연합의 세계에 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함(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

이 없나니(딤후4:4).”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다 필요하다. 건축하는데 가보면 온갖 자재가 다 있는데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집은 조그마한 공방이 아니다. 책상이나 하나 만드는 공방이 아니고 큰 건축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별것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놔두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이 생기게 된다. 거침돌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건축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形形色색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많다. 그런데 어떻게 복이 없는 사람은 꼭 안 좋은 것만 보인다. 이상하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나쁜 것만 보인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 일생이 다 간다. 내 눈에 볼 때 필요 없는 것이 없다. 다 필요하다.

내가 성질이 좋아서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두고 보니까 다 필요하다. 어떤 목적을 두고 따로 하려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데 지어저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속이 넓어서 넓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건축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넓어진다. 건축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왜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보면 신기하다. 저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내가 찬송가를 개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어떻게 600곡 찬송을 개사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겠는가? 나도 옛날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그런데 류*형 형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여 하라고 했다. 보통 교회에서 못 듣는 간증이다. 그리고 노래를 하겠다고 했다. 머리가 좋아서 자기 나름대로 유행가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곳에 왔습니다.’라는 것이다. 처음에 뜨끔했다. 저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저것이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찬송해야지 어떻게 찬송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찬송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찬송이지 꼭 600곡속에 있어야 찬송이고, 그렇지 않으면 찬송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다. 관념이 그 사람 때문에 쉽게 바뀌어졌다. 그 다음번에 나오면 맨날 그 노래를 부른다. 똑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자기 찬송이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개방되고 달라지고 변한다. 방 한칸 붙이고 또 붙이고 연하여 지어져간다. 우리 교회는 류*형방 따로 있고, 이*수방이 따로 있다. 이렇게 방이 다 따로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방은 그 사람밖에 지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부잣집에 가면 방도 여러 가지다. 침실도 있고 뭐도 있고 방이 여러 가지이다. 웅색한 집에 가면 방 한 칸을 가지고 온 식구가 산다.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다. 방 하나에 일곱 식구가 살았다.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부잣집에 가면 그때에도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맘대로 이 방에 자거나 저 방에 자거나 한다.

교회도 방이 여럿이면 모든 사람이 와서 잘 수 있다. 이 사람이 오면 잘 수 있고 저 사람이 오면 잘 수 있다.

새 언약의 시대, 지금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나와 성질이 제일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된다. 친하다는 것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와 성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나와 똑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새 언약의 축복, 연합의 축복, 그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 때 화려했다. 하지만 거기 연합할 사람이 없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놀라웠다. 하지만 거기 연합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끝냈으면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면 뭣하는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한국은행에 돈이 많으면 뭣하는가?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뭣하겠는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위대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려다가 고생한다. 너무너무 고생한다. 고생시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안에서도 빛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본받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런데 애만 쓰지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다. 조지 물러가 5만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다 그렇게 되는가? 안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한다.

괜히 사람을 갖다가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자기 기호에 맞도록 깎아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있는 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어디서 그렇게 하겠는가? 연합의 세계에서 만 있는 대로 쓰는 것이 가능하지 다른데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다. 교회 한 사람을 보아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오는가? 안 온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 말씀을 들어주겠는가?

이번에 <주의 손에 이끌려> 책을 내놓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을 받기가 찝찝하였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더니 불티나게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공으로 주어서 불티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읽어 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읽어 줄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바깥 시장에 내놓으면 안 팔린다. 자서전 읽는 사람들이 성공담을 읽으려고 읽는 것인데, 실패담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놓아봤자 안 팔린다. 종로에 내놓으면 공으로 줘도 안 가져간다.

그런데 형제들은 갖다 읽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 두 번 읽었다는 사람, 세 번 읽었다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가! 내 책을 그렇게 읽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일생이 거기 들었는데 나대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을 읽어서 가치가 있겠는가? 정*영씨 자서전을 읽으면 가치가 많고 배울 것이 많다. 내 자서전을 읽으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수두룩 있는데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려할 때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보다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겠는가. 돌로 떡을 만들어먹지 못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이 없겠는가.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나는 조건이 너무 나빠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 일단 만나는 사람에게 내 사정을 다 털어놓았다.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부담이 없었

다. 나는 이렇고 이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부담이 없어졌다. 만일에 조건 따지는 사람 같으면 못한다. 내 가장 약한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가장 약한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버리겠는가? 내가 예수 없이 못산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의 가장 열약한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오죽하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는가? 이것이 조강지처이다. 이런 사람은 조강지처가 되는 것이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나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으니까 그렇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적게 살지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상을 하고 있다. 데려가 봐야 자기 손해지 내 손해냐? 나야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있다. 내가 일찍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이상한 일이다.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다. 이제는 전화를 하려고 해도 다 가버리고 없다. 그런데 내가 살아 있으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너무 재미있다. 이번에 김치현 목사가 시편 23편을 말씀했는데 절절이 내 이야기이다. 그날 간증을 하려다 못했다. 이 화령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나는 자동차 뒤에 눕고 이*택 형제가 운전을 했다. 운전 실력을 아니까 안심하고 누워서 시편 23편 그 노래를 틀고 다녔다. 지금 우리가 부른 노래를 틀고 다녔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5절로 만들어 개사했다. 그 내용은 거의 다 같이 넣어서 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고 혼자 밖에 나와서 부른다. 절절히 재미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시23:5).” 이것은 신나는 일이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준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이야기이다. 생각해보라. 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다. 40년 만에 고향에 찾아갔더니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너무 멸시를 했는데, 죽고 없었다. 허탈했

다. 고향에 가면 한번 봐야지 했다. 이 사람 자네 그런 말을 했지 하고 보려고 했더니 나보다 먼저 죽고 없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전쟁터에서 하는 말이지만 시편을 볼 때마다 절절히 내 이야기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